

#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조합으로 육성



△먼저 조합장에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천안양계조합 하면 우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계란공급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종식 : 천안양계조합은 총19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90여만개의 계란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입하되는 계란은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나

품질관리상에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군 목천면 신계리에 집하장을 건립하여 시간당 5만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해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가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합 뿐 아니라 채란농가도 어려움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농가에게도 이익이 되고 조합은

□ 정리/이영오 기자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이 조합장으로 조합원을 위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 보고 있습니다.

난가가 하락하여 제고가 누적되다 보면 기본 운영비는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자금운영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수탁사업으로의 전환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란수급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식 : 경기전망은 대개 병아리입추와 사료생산 실적 추이를 분석해서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92년에 입식된 산란실용계 숫자

가 과잉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산측면의 문제 보다는 소비위축이 가장 큰 난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소비확대는 전 생산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생산도 증가세를 보인 만큼 노계의 적절한 도태나 입추를 자기 능력에 맞게 조절하여 손실을 줄이는 길이 현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계란유통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보다는 발전은 되었으나 근본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채란업자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인데 이같은 때에 조합의 역할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식 : 계란유통의 문

제점은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므로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같은 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한 위생처리된 계란유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자동화 시설로 계란도 농장에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도 점차로 짧아져 신선함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농가들이 중간상인과 거래를 하여 인위적인 조작으로 중간이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생산자들이 어떤 유형으로건 생산된 계란의 유통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조합은 후발조합이지만 지리적 특수성, 조합원과의 결속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조합으로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비문화가 채란업계를 어렵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돌파구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종식 : 소비창출을 위해 공동대처가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양적인 공급보다는 질적인 공급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거에야 공급자가 조달하는 대로 소비가 되었으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대로 공급이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 이에 부응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조합도 집하장이 완공되면 캡슐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산 보급하고 주부들을 초대해 처리과정을 견학시켜 소비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